

金鰲新話에 나타난 挿入詩歌의 樣相과 機能

鄭 炳 浩*

《목 차》

1. 序 論	3.1.2. 離別의 告知
2. 挿入詩歌의 樣相	3.1.3. 人物의 內面 暗示
2.1. 詩歌型別 樣相	3.2. 挿入의 機能
2.2. 歌詠者 및 敘事段階別 樣相	3.2.1. 才能의 例示
3. 挿入詩歌의 機能	3.2.2. 雰圍氣의 裝飾
3.1. 有機的 機能	4. 有機的·挿入의 機能의 關係
3.1.1. 만남의 媒介	5. 結 論

1. 序 論

그동안 《金鰲新話》¹⁾에 대해선 작가의 생애와 사상, 형성과정, 작품해석 등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이루어진 성과를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의 본질해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금오신화는 초기소설로서의 성격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사와 서정장르의 공존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장르의 복합 내지 혼란 문제로 확대시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에 의해 이야기가 산문으로 운반²⁾되고 자아와 세계의 상호우위에 입각한 대결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소설로 규정³⁾짓고 논의를 전개시키기로 한다.

금오신화를 소설로 규정한다는 전제는 여기에 삽입된 시가의 기능을 서사문맥 속에서 파악한다는 함의와 연결된다. 서사는 사건의 전개에 초점이 두어지는 장르로서 인물의 형상

* 경북대학교 강사

1) 원문인용은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大塚本에 따랐고, 번역은 李載浩의 것(《을유문화사, 1972》)을 인용했다.

2) R. Kellogg & R. Scholes, *The Nature of Narrative*(Oxford University Press, 1979)에서 서사문학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서술자와 이야기를 들고 있다.

3)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97~270면 참조.

화, 배경제시 등이 사건전개와 연결될 때 유기적 질서⁴⁾를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삽입 시가⁵⁾ 역시 사건의 전개에 직·간접으로 기여한다면 이를 유기적 기능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서사의 구성요소가 모두 유기적 질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삽입시기도 사건의 전개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삽입적 기능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삽입시가가 나타나는 양상을 통해 작가의 의도적 배열을 확인한 후 그 결과가 작품속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유기적 기능과 삽입적 기능이라는 두 잣대로 환치시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작품 속에서의 두 기능의 비중을 따져보면 작품의 수준도 가늠되리라 예상된다.

2. 插入詩歌의 樣相

2.1. 詩歌型別 樣相

<표1>

작품	古體詩			近體詩					歌 ⁶⁾		計
	사언	칠언	장단구	오언절구	칠언절구	칠언율시	오언배율	칠언배율	詞	曲	
만복사저포기	3	·	1	·	18	1	·	·	1	·	24
이생규장전	·	3	·	1	24	·	·	1	1	·	30
취유부벽정기	·	1	·	·	·	12	1	·	·	·	14
용궁부연록	·	·	·	·	·	3	1	·	5	2	11
計	3	4	1	1	42	16	2	1	7	2	79
	8			62					9		

《금오신화》에는 사상적 논쟁을 다룬 <南炎浮洲志>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시가가 삽입되어 있다. 시가의 수에 비례해서 형태상으로도 여러 종류의 시가가 나타나 있다. 우선 사언, 칠언, 장단구의 고체시를 비롯하여 오언·칠언절구, 칠언율시, 오언·칠언배율의 근체

4) 조동일은 문학작품의 시간적 질서를 삽화적 질서, 연쇄적 질서, 유기적 질서로 나눈 바 있는데 이 글에서 중요하게 부각시킨 삽입시가의 유기적 기능과 삽입적 기능이란 용어는 여기서 많은 시사를 받아 이루어졌다.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160~162면 참조)

5) 삽입시가와 삽입적 기능에서의 삽입이란 용어는 의미상으로 다소의 차이를 갖는다. 즉, 전자의 삽입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유기적이라는 관행어와 대립적으로 쓰인다. 따라서 삽입시가 속에는 유기적 기능까지도 포괄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間詩, 小說詩 등의 용어가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詞와 曲은 漢詩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된 문문의 양식이고 樂을 전제로 지어진 것이므로 이 둘을 가리는 양식으로 통칭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럴 경우 삽입시가라는 용어도 직질성을 획득할 수 있다.

시, 그리고 가창을 전제로 하여 지어진 詞, 曲 등이 《금오신화》에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금오신화에 79수나 되는 시가가 여러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는 현상은 작가 金時習의 문학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글을 모아 놓은 《梅月堂集》은 2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15권이 시집에 속하며 여기에 수록된 시편만 하더라도 2200여수에 이르고 있다⁷⁾는 사실은 그가 산문보다는 시에 더 주력한 文人임을 드러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삽입시가 79수 중 <만복사저포기>에서 여인과 양생이 개녕동으로 가면서 대화의 수단으로 읊은 두 수만 《詩經》에서 인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작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시가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시가를 쓰지 않고 굳이 자작시가를 소설에 삽입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적합한 시가가 없어서 그랬을 법도 하지만 그보다는 나름대로 산문 속에서의 운문의 기능을 의식하고 시가를 삽입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79수 가운데 七言이 66수를 차지하고 七言 중에서는 絶句가 42수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자료는 두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그 당시 시단의 흐름⁸⁾과 작가의 시적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는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위의 통계를 해석하면, 내면의 심회나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기에는 七言이 五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고 정서적 긴장을 유지시키는 데는 읊시나 배율보다 절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七言, 그 중에서도 七言絶句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2.2. 歌詠者 및 敘事段階別 樣相

시가를 가창하거나 음영하는 인물을 서사내의 역할에 따라 주동인물과 보조인물로 나누고 이를 서사단계와 연관시켜 삽입시가의 양상에 나타난 의미를 추출해 내기로 한다. 주동인물은 세계의 횡포에 맞서 대결을 벌이는 자아, 즉 주인공을 지칭하며 보조인물은 주동인물과 교류하거나 관련을 맺으면서 작품내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이러한 주동인물과 보조인물의 엮힘을 통해 진행되는 서사의 단계는 사건의 모티프와 구성의 순차적 질서에 따라 <만남-교유-이별>로 공식화할 수 있다.

7) 민병수, “메월당의 시세계”(인문논총 제3집, 서울대, 1979), 4면.

8) 민병수, “한문소설의 삽입시에 대하여”(장덕순선생화갑기념논총,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470면 참조.

<표2>

작품 가영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계
	양생	여인	계	이생	최량	홍생	기씨녀	계	한생	용왕	
주동인물	4	4	8	5.5 ⁹⁾	5.5	7	7	14	2	1	·
	4	4	8	·	·	·	·	·	1	1	36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
보조인물 (익명)	정씨	4	16	世人	1	·	·	·	미인들	1	43
	오씨	4	16	익명 (제화시)	2				총각들	1	
	김씨	4	16	익명 (사계시)	16				계	1	
	류씨	4	16	계	19				거북	1	
	계	계	계	계	계				괴물들	1	
									조강신	1	
									낙하신	1	
					벽란신	1					
					계	8					

<표3>

작품 가영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계		
	만남	교유	이별	만남	교유	이별	만남	교유	이별	만남	교유	이별	만남	교유	이별
주동인물	1	4	3	6	4	1	6	7	1	·	3	·	13	18	5
보조인물	·	·	16	1	18	·	·	·	·	·	8	·	1	26	16
계	1	4	19	7	22	1	6	7	1	·	11	·	14	44	21

<표2>를 통해서 보면 주동인물(36수)과 보조인물(43수)이 가영한 시편이 비슷한 수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동인물의 숫자가 보조인물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별적으로는 주동인물 각각에게 더 많은 시편이 할애되어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서술의 균형을 꾀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주동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소설 속에서의 주동인물의 비중과 역할이 삽입시에게도 그대로 이월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물론 주동인물이 가영한 시가가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피상적인 현상만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가가 서사내에서 사건의 전개, 인물의 내면암시 등의 유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동인물 중 남녀 주인공의 시가를 같은 수로 삽입하여 화답의 형식을 취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금요신화에서 보조인물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나타나는 경우도 그 양상이 일정치가 않다. 개별적인 인물, 복수형의 인물들, 의인화된 동물, 신, 제화시를 지은 익

9) 5.5는 5수 2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2구를 통계의 편의상 0.5로 처리했다. 이생과 최량이 절구 중의 두 구씩을 나누어 읊은 것을 뜻한다.

명의 인물 등이 두루 등장한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다양한 양상과는 달리 시가의 내용은 풍부하지 못하고 획일성을 띠고 있다. 서술상으로는 주동인물의 시편과 비슷한 양으로 삽입되어 있지만 인물 자체의 유형적 성격과 제한적 역할에 맞물려 삽입시가 역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단계상으로 삽입시가는 인물들간의 교류부분에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작가의 詩才를 과시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지만 <만남-이별>의 단계에 속해있는 시가가 서사와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특히 만남과 이별은 주동인물에 의해 진행되고 거기에 삽입시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상은 <만남-이별>의 서사단계에서 주동인물이 가명한 시가가 서사 속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3. 挿入詩歌의 機能

3.1. 有機的 機能

3.1.1. 만남의 媒介

금오신화는 <만남-교유-이별>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작품에서 주동인물간의 만남은 곧 사건의 발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오신화에서는 삽입시가를 통해 인물들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一樹梨花伴寂寥
可憐孤負月明宵
靑年獨臥孤窓畔
何處玉人吹鳳簫

翡翠孤飛不作雙
鴛鴦失侶浴暗江
誰家有約敲碁子
夜卜燈花愁倚窓

한 그루 배꽃나무 외로움을 달래주나
휘영청 달 밝으니 허송하기 외롭구나
푸른 꿈 홀로 누운 호젓한 들창가로
어느 집 이쁜 님이 통소를 불어주네

외로운 저 비취는 재 홀로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새는 맑은 물에 노니는데
기보를 풀어보며 인연을 그리다가
등불로 점치고는 창가에서 시름하네

양생이 봄밤에 배나무 밑을 거닐면서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읊은 시이다. 양생이 이 시를 통해 하늘로부터 <그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할진대 그 무엇 근심할 것이 있으리>¹⁰⁾라는 응답을 받게 된다. 이처럼 양생이 자신의 심정을 시로 읊자 하늘이 응답했다는 것은 시가

10) “君欲得好逑何憂不遂”(金鰲新話, 16면)

인간과 靈을 이어주는 기능¹¹⁾을 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 된다. 양생은 靈과의 접촉을 통해 배필을 구하는 묘책을 제시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처와의 저포놀이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생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된다.

<萬福寺棼瀟記>의 서두에 제시된 칠언절구 2수는 여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에게 전해져 그에 의해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양생의 시를 듣고 여인이 화답하여 서로 만나는 식으로 서사를 처리하지 않고 초월적 존재를 개입시킨 것은 여인이 혼령인 점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인간과 죽은 혼령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한 기법으로 볼 수 있다.

獨倚紗窓刺繡遲

百花叢裏囀黃鸝

無端暗結東風怨

不語停針有所思

路上誰家白面郎

靑衿大帶映垂楊

何方可化堂中燕

低掠珠簾斜度牆

사창에 기대 앉아 수 놓기도 느리구나

활짝 핀 꽃떨기에 피골새는 지저귀고

살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하며

가만히 바늘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네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누구집 도련님고

푸른 깃 넓은 띠가 버들 새로 비쳐오네

이몸이 화신하여 대청안에 제비되면

주렴을 사뿐 걸어 담장 위를 넘어가리

이생이 자신을 엿보고 있음을 눈치 채 최랑이 외로움과 구애의 심경을 표현한 시로서 이생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두 사람은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초월적 존재의 개입없이 당사자들간의 시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두 남녀가 현실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을 쓴 것으로 이해된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 제시된 양생과 최랑의 시는 서사진행에 있어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시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에서 이들의 생략은 서사적 질서의 붕괴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들 시는 만남의 단계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개적 기능을 하는게 아니라 그 자체의 시적 주제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속에는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시적 화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구절마다 배여 있다.

<醉遊浮碧亭記>에서도 시를 통한 인물간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다.

庭草秋寒玉露潤

靑雲橋對白雲橋

찬 이슬이 내렸으니 뜰의 초목 시들었네

왼편은 청운교요 오른편은 백운교라

11) 설중환, “금오신화의 삼입시연구시론”(전주우석여대논문집1집, 1980), 5면.

隋家士卒隨鳴颯	수나라 사졸 났은 여울에서 울어예고
帝子精靈化怨螭	가을 매미 울음소리 동명성왕 뉘이런가
馳道烟埋香箴絕	연기끼 한길에는 상감행차 간곳 없고
行宮松偃暮鍾搖	술 우거진 행궁에는 종소리만 들리누나
登高作賦誰同賞	정자에 높이 올라 시 읊어도 함께 즐겨줄 이없네
月白風清興未銷	밝은 달 맑은 바람에 이 마음만 들뜨누나

위의 시는 칠언율시 6수 중 마지막 수로 홍생이 옛 도읍지를 돌아보며 회고의 정을 읊은 것이다. 이 시를 듣고 殷왕실의 후손인 箕氏女가 지상으로 내려와 홍생과 만나게 된다. 만남을 이어주는 면에서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 자체의 구성력이나 내용의 긴밀성에 있어서 두 작품보다는 질적 저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인물의 만남을 환상적으로 처리한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3.1.2. 離別의 告知

금오신화에서의 만남은 시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이별은 시로써 알려진다. 즉, 작중인물은 시를 통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토로하면서 이별이 영원한 것임을 알려준다.

冥數有限	저승길이 촉박하여
慘然將別	애답게 떠납니다
願我良人	비나이다 님이시여
無或疎闊	저버리진 마소서
哀哀父母	슬프다 우리 부모
不我匹兮	내 배필 못지었네
漠漠九原	아득한 저승에서
心糾結兮	원한만이 맺히리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면서 양생에게 이별을 고한 시로서 양생은 이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가슴깊이 느끼게 된다. 위의 시는 이별의 告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양생의 삶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즉, 여인의 <저버리진 마소서>라는 간절한 애원에 양생은 결국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산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최랑이 직접 이생을 대면한 자리에서 이별의 시를 읊음으로써 슬픔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干戈滿目交揮處
玉碎花飛鶴失侶
殘骸狼藉竟誰埋
血污遊魂無與語
高唐一下巫山女
破鏡重分心慘楚
從茲一別兩茫茫
天上人間音信阻

도적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 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잃었네
여저기 홀인 해골 그 누가 물어주리
피투성이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여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위의 시를 통해 이별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임을 알아차린 이생은 그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그 뒤 세상을 떠나고 만다. 여기서도 최량은 이별의 告知를 통해 이생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두 작품에서는 시를 읊기전에 산문을 통해서도 이별의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양생과 이생은 산문적 서술을 통해서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인과 최량이 그들의 아픈 심경을 시로 읊자 양생과 이생은 비로소 이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된다.

雲雨陽臺一夢間
何年重見玉簫還
江波縱是無情物
嗚咽哀鳴下別灘

양대에서 뵈은 님 다만 일장 춘몽인가
가신님 어느해에 뵈소볼고 돌아오리
대동강 푸른 물결 비록 무정하지마는
님을 여윈 저 곳으로 슬피울며 흘러가네

기씨녀가 지상에서 사라진 뒤 홍생이 청아한 이야기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 시이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선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이별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사라진 기씨녀를 대신하여 홍생이 독자들에게 자신과 기씨녀가 이별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만남에서 보여준 환상이 이별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3.1.3. 人物의 內面 暗示

인물의 성격은 사건전개나 주제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므로¹²⁾문맥을 통해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물의 성격제시는 크게 서술자의 직접적 제시와 대화나 행동을 통한 간접적 암시로 나눌 수 있다. 금오신화에 있어서 전자는 주로 산문에

12) 여기현, “이생규장전의 한시연구”(성대문학25집, 성균관대, 1987), 87면.

의해 제시되고 후자는 주로 대화나 행동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시를 통해 암시된다.

(가) 모두 번영한 귀족집 따님이며 이 여인과 한 마을에 사는 친척들로서 성숙한 처녀들이었다. 성품이 온순하고 인자하며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고 또한 자질이 총명하여 문장에 능했다.

(皆貴家巨族 而與女子同閭閈親戚 而處子者也 性俱溫和 風韻不常 而又聰明識字 能爲詩賦)

(나) 何方可化堂中燕 이몸이 화신하여 대청안의 제비되면
低掠珠簾斜度牆 주렴을 사뿐 건어 담장위를 넘어가리

(가)는 <만복사저포기>에서 작가가 鄭氏·吳氏·金氏·柳氏의 외모와 자질 그리고 성격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여인이 읊은 칠언절구 두번째 수의 轉·結句로 적극적인 인물의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다.

(가)에서 독자는 인물의 성격을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작가가 제시한 것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여기에 비해 (나)에선 상상력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독자는 그만큼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다) ① 桃李枝間花富貴 도리 나무 엷힌 가지 꽃송이 탐스럽고
 鴛鴦枕上月嬋娟 원앙새 베개 위엔 달빛도 곱고나
② 他日瀟灑春消息 이다음 어찌다가 봄소식이 샌다면
 風雨無情亦可憐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

(라) 標梅情約竟蹉蛇 매화지니 맺은 가약 속절없이 된단말가
 羸負春風事已過 봄바람 건듯부니 사랑은 지나갔네
 枕上淚痕幾圓點 베개머리 눈물자국 얼마나 적셨던고
 滿庭山雨打梨花 무심한 산비내려 배꽃만 떨어지네

(마) 破鏡重圓會有時 깨진 거울 합쳐지니 이것 또한 인연이네
 天津烏鵲助佳期 은하의 오작들도 이 가약을 돕겠네
 從今月老纏繩去 이제부터 월로는 붉은 실 맺어주니
 莫向東風怨子規 봄바람 부는 저녁 두견새 원망마오

(다)의 ①, ②는 이생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최랑이 읊은 시에 그가 화답한 것이다. ①에서 최랑은 結緣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생은 ②에서 자신들의 비밀스런 사랑이 부모에게 알려져 곤란을 당할 것을 겁내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

가를 통해 인물의 대조적인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다¹³⁾

(라)는 酒宴에서 여인의 친척인 鄭氏가 읊은 칠언절구의 세번째 시로서 세월의 무정함과 자신의 외로운 심경을 애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는 곧 내면의 심리상태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는 이생이 최량과 재회하게 되자 그 기쁨을 표현한 시로 여기서도 인물의 내면상태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의 암시는 인물을 형상화해 준다는 점에서 서사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시말해, 서사전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삽입시가의 유기적 기능을 방증해 주고 있다.

3.2. 插入的 機能

3.2.1. 才能의 例示

작가는 자신의 삶의 궤적을 허구의 형식을 통해 형상화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용궁부연록>은 매월당의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의 시재를 보여주기 위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拋梁東	돌보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紫翠巖峽撐碧空	붉고 푸른 높은 산은 저 하늘을 버티었네
⋮	⋮
拋梁下	돌보 아래로 눈을 돌려보니
可惜春時飛野馬	아깝게도 봄 들판에 아지랑이 나는구나

용왕의 부탁을 받고 지은 상량문의 끝에 붙인 단가로 작가의 시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다. 이어 벽담곡, 회풍곡, 수룡음 등의 詞·曲이 불려지고 있으며 개를 의인한 곡개사, 거북을 의인한 현선생까지 등장하여 시재를 과시하고 있다. 祖江神, 洛河神, 碧瀾神의 칠언율시에 대해 화답한 한생의 20韻에 달하는 오언배율에 이르러 이 작품은 종결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시를 생략하고 읽어야 할 만큼 시의 남용으로 인해 서사적 질서가 약화되어 있다. 서사진행의 내용과 상관없는 시가 그것도 장편의 형식으로 삽입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을 더해주고 있다.

不堪吟上溟江亭	부벽정 높이 올라 감개 깊어 시 읊으니
嗚咽江流腸斷聲	구슬픈 강물소리 애끓는 듯하구나

13) 이승복, “고전소설의 서술구조와 삽입시가의 기능”(서울대학교원석사논문, 1986), 47면.

故國已銷龍虎氣	고국은 어디메요 영웅은 간곳없네
荒城猶帶鳳凰形	황성은 지금도 봉황모습 그대로네
汀沙月白迷歸雁	달빛서린 모래밭에 기러기 갈길잃고
庭草烟收點露螢	연기걸힌 풀밭엔 반딧불만 날고있네
風景蕭條人事換	풍경도 쓸쓸하고 세상도 변했는데
寒山寺裏聽鐘鳴	영명사 깊은 곳에 종소리만 들려오네

위의 시는 홍생이 고구려의 옛 서울을 돌아보면서 지은 칠언율시 6수 중 첫째 수로서 회고의 정을 반복해서 읊음으로써 지루한 느낌을 주고 있다. 여기에 화답한 기씨녀의 칠언율시 6수도 동일한 내용을 부연해서 읊고 있다. 특히 한생의 부탁으로 기씨녀가 지은 <江亭秋夜玩月> 40운은 시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씨녀가 한생의 시에 화답한 칠언율시의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삽입시가는 서사적 유기성과는 상관없이 다만 작가의 시재를 예시하기 위해 삽입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2.2. 霧圍氣의 裝飾

흔히 시가는 유흥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 시의 주된 내용은 자연경치에 대한 느낌 또는 현상태에 있어서의 자신의 정서 표현 등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이때의 시는 즉발적 감정의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시인의 작품내에서도 그 유기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何人筆端有餘力	어떤 사람 붓끝에 힘이 넘쳐
寫此江心千疊山	이 강 위의 첩첩 산을 알뜰히도 그렸는가
壯哉方壺三萬丈	웅장하다 삼만길의 저 방호산
半出縹緲烟雲間	아득한 구름 속에 봉우리 뿔듯 말듯
遠勢微茫幾百里	멀고 먼 산세는 몇 백리에 서려있고
近見峯嶺青螺髻	눈 앞에 솟은 모양 꼬불머리 비슷하네
滄波淼淼浮遠空	망망한 푸른 물결 먼 하늘에 닿았는데
日暮遙望愁鄉關	저문 날 바라보니 고향 생각 그지없네
對此令人意蕭索	그림을 보고나니 내 심정 쓸쓸하여
疑泛湘江風雨鬪	상강 비바람에 배 띄운 듯 하여라

위의 시는 누각에 걸려있는 <烟江疊嶂圖>위의 題畫詩로 최량이 거처하는 곳의 仙境的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의 <幽篁古木圖>위에 쓰여있는 계화시도 대나무와 고목을 통해 고풍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조성은 사건의 진행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¹⁴⁾으로 하여 그 존재의 필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장식적 수단에 그치고 있다.

<취유부벽정기>에 삽입되어 있는 시는 대부분 회고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서사와 관련된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부연과 반복을 통한 장황한 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선 장식적 기능 이상의 의미를 지니진 못한다.

4. 有機的·挿入的 機能의 關係

유기적 기능에서는 서정 장르가 서사 속에 용해되어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해 삽입적 기능에선 서사와 융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정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유기적 기능이 필수적 조건이라면 삽입적 기능은 선택적 항목에 해당된다.

그런데 《금오신화》에서의 삽입시가는 어느 하나의 기능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유기적 기능과 삽입적 기능이 개별 작품속에 공존하고 있다. 유기적 기능을 지닌 시가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이상적인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될 수 없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삽입적 기능 자체의 의미는 한정적이거나 고려되어야 한다.

유기적 기능에서는 사건의 전개, 인물의 형상화, 배경의 제시 등의 구성 요소들이 서사를 향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사이에 삽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가가 과도하게 끼어들면 서사의 단절 내지는 파탄이 일어나게 된다. 서술이 시가에 의해 길어지면 독자의 극적 긴장감은 이완되고 시가 본래의 기능인 정서적 환기마저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삽입적 기능의 존재의의는 서사적 질서를 붕괴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금오신화를 삽입시가의 기능의 비중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유기적 기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작품이고 <취유부벽정기>와 <용궁부연록>은 삽입적 기능이 우세한 작품이다. 전자의 작품들에서는 시가가 주로 만남과 이별의 단계에 나타나 사건을 발단시키거나 전환시키고 인물의 내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삽입적 기능까지 나름의 존재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작품들에서는 인물의 재능을 예시하거나 분위기를 장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가가 과도하게 삽입되어 만남-이별의 단계에서 유기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가마저 매몰시켜 버리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삽입시가의 기능에 따른 적절한 배합이 작품의 가치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14) 김창현, “삽입시가의 기능연구”(목원어문학5, 목원대, 1985), 65-66면 참조.

5. 結 論

금오신화에는 79수의 시가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시가가 작가의 창작시가지고 정서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내면의 심회를 상세히 표현하는데 유리한 七言絶句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작가는 시가를 소설 속에 의도적으로 삽입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동인물의 시편이 보조인물이 읊은 시가와는 달리 서사적 유기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도 만남-이별의 서사단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작가가 시가의 기능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모두 긍정적 결과로만 나타난게 아니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즉, 긍·부정적 결과를 유기적·삽입적 기능과 대응시킬 수 있다.

금오신화는 <만남-교유-이별>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물사이의 만남은 사건의 발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사단계에서 삽입시가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혼령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별의 단계에서는 삽입시가를 통해 이별의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슬픔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만남의 매개나 이별의 告知는 사건의 전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오신화에서는 인물의 내면이나 심리상태가 주로 삽입시가를 통해 암시되고 있는데, 인물의 형상화는 사건전개와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이 때의 삽입시가는 사건을 전개시키고 인물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유기적 기능에 속한다.

이와는 달리, 삽입시가가 등장인물이나 작가의 재능을 예시하는 수단으로, 또는 사건의 내용이나 전개와는 무관하게 단지 분위기를 장식하기 위한 장치로 과도하게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가는 작품에서 빼내어 버려도 서사적 질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삽입적 기능으로 다루어 서사를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존재의의를 한정했다.

금오신화에는 개별작품속에 유기적 기능과 삽입적 기능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의 비중에 따라 작품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삽입시가가 <취유부벽정기>와 <용궁부연록>의 그것에 비해 유기적 기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작품의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대상작품을 금오신화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얻은 결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소설의 전형적인 면모를 금오신화가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얻은 성과를 이후의 다른 고전소설의 삽입시가에도 적용시켜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삽입시가의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 기능과 삽입적 기능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하여 다른 점과 두 기능의 관계를 개별작품을 통해 실증적으로 귀납하지 못한 점이 이 글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金鰲新話(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73.
- 金鰲新話(李載浩譯), 乙酉文化社, 1972.
- 金光淳, “金時習과 金鰲新話”, 「韓國古小說史와 論」, 새문사, 1990.
- 金聖基, “萬福寺楞菴記에 대한 心理的 考察”, 「韓國古典散文研究」, 同和文化社, 1981.
- 金一烈, “金鰲新話考察”,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6.
- 金鎮斗, “金鰲新話의 挿入詩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 金昌顯, “挿入詩歌의 機能研究－朝鮮朝小說中에서－”, 목원어문학5, 목원대, 1985.
- 文永午, “漢文小說에 삽입된 漢詩의 機能研究－金鰲新話와 燕岩小說을 中心으로－”, 한국문학연구4, 동국대, 1982.
- 閔丙秀, “梅月堂의 詩世界”, 인문논총3집, 서울대, 1978.
- _____, “漢文小說의 挿入詩에 대하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 朴晟義, “比較文學的 見地에서 본 金鰲新話와 剪燈新話”, 文理論集 제3집, 고려대 문리대, 1958.
- 徐珪部, “梅月堂의 唯心의 人生觀과 詩世界”, 고려대 대학원, 1982.
- 薛重煥, “金鰲新話의 挿入詩研究試論”, 전주우석여대논문집1집, 1980.
- _____, 金鰲新話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3.
- 蘇在英, “金鰲新話의 文學的 價値”, 「韓國古小說의 照明」, 아세아문화사, 1990.
- 呂基鉉, “이생규장전의 한시연구”, 성대문학25집, 성균관대, 1987.
- 李相澤, “醉遊浮碧亭記의 道家의 文化意識”,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사, 1981.
- 李昇馥, “古典小說의 敘述構造와 挿入詩歌의 機能”, 국문학연구76집,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86.
-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1969.
- 李鍾振, “詩와 文의 分合關係로 본 中國文學의 演進”, 中國語文學 창간호, 영남중국어문학회, 1980.
- 林榮澤,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鰲新話”, 국문학연구 13,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71.
- 鄭炳昱, “金時習과 金鰲新話”, 「한국고전소설」, 계명대출판부, 1974.
- 鄭往東, 梅月堂 金時習研究, 新雅社, 1965.
- 趙東一,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 _____,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 崔三龍, “金鰲新話의 悲劇性과 超越의 問題”, 「한국고전소설연구」, 二友出版社, 1983.
- 崔淑仁, “李生窺牆傳研究”, 梨花語文論集3집, 이화어문학회, 1980.
- R. Kellogg & R. Scholes,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79.